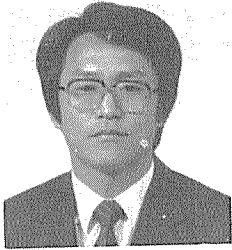


政策開發과 企業 情報서비스에 더욱 精進



李 景 台
産業研究院 産業·技術 3室長

1985년은 韓國 經濟 전반은 물론 특히 電子産業에 있어서도 희망과 도전을 안겨주는 해가 될 것이다. 즉 금년에는 最尖端製品인 256KDRAM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開發되어 量産·輸出을 개시하고 IBM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메이커들의 國內 進出이 본격화되어 우리나라의 電子業界는 國內外市場에서 선진공업국들과 격화되는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한편 활발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입어 電子製品의 생산이 90억 弗, 輸出은 50억 弗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産業研究院의 전반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電子産業을 비롯한 尖端技術産業의 動向分析 및 政策研究를 수행하고 있는 産業·技術 3室의 금년도 事業計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産業研究院(KIET)은 1982년 1월 과거의 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와 國際經濟研究院(KIEI)을 통합하여 설립된 商工部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産業研究院의 주요 機能으로서는 첫째, 國內外의 産業·貿易·技術에 관련된 각종 動向과 情報를 수집하는 資料銀行의 機能.

둘째, 수집된 자료를 調査·研究하여 기업과 정부에 제공하는 研究·分析 機能과 政策支援 機能.

셋째, 기업의 경영 개선, 기술 혁신 및 海外 進出 등을 돕는 企業支援 機能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연구원은 産業·技術 1~5室과 地

域 1~5室 및 技術情報室, 特許情報室, 企業諮問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産業·技術 3室은 컴퓨터, 半導體 등을 위시한 電子産業 一般을 그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電子産業에 관련된 國內外市場 및 技術情報의 수집 및 분석·연구
- (2) 研究資料의 對企業提供
- (3) 對企業 資料情報相談
- (4) 國內 電子産業의 현황 파악 및 육성 방향의 제시
- (5) 電子産業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對政府 諮問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産業·技術 3室의 업무는 當室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當室 發刊資料로서는

- 韓國電子機器産業의 構造와 發展方向 (82. 11. 30)
- 韓國電子部品産業의 構造와 國産化戰略 (82. 11. 30)
- 尖端技術産業의 動向과 우리의 대응 (83. 8. 5)
- 主要 電子部品産業의 現況과 育成方向 (83. 9. 2)
- 로보트 産業의 現況과 展望 (83. 9. 5)
- 유전공학의 현황과 육성대책 (84. 6. 18)
- 半導體産業의 구조와 발전방향 (84. 9. 22)
- 우리나라 컴퓨터産業의 中長期 發展戰略 (84. 9. 29)
- 등의 研究報告書와
- 세계의 오디오市場과 需給 展望 (82. 8. 23)
- 家庭用 電子機器의 中長期 展望 (83. 12. 9)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産業政策比較 研究
(84. 9. 21)

○尖端産業을 둘러싼 貿易摩擦(84. 10. 23)

○半導體産業의 中期豫測(84. 11. 12)

등의 번역시리즈가 있다.

또한 1984년에는 「業種別 研究開發 投資現況 및 産業技術 支援制度의 걱정성 검토」 등의 對 政府 建議를 통하여 企業의 技術開發을 더욱 活性化하기 위한 政策改善에 노력하였고 對企業 情報서비스로서는 필름 콘덴서 産業 投資의 技術的·經濟的 타당성 분석 등의 綜合分析을 비롯하여 약 300건의 情報相談을 실시하였다.

1985년의 업무계획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실적의 延長線上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年初에 발간될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 補助 記憶裝置, 의료용 電子機器 등 個別 品目들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電子部品産業의 구조와 競爭力 分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당면 과제인 産業用 機器 및 部品産業의 육성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금년에는 電子産業의 自立度 提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電子材料産業의 長期育成 方向을 모색하여 보는 한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技術이 급격히 진보됨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生産 및 事務自動化의 社會經濟的 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며 나아가 2천 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中長期 成長展望을 완성하여 企業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985년에 들어서 産業·技術 3室의 對企業서비스는 특히 海外市場 및 尖端技術 情報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제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當室에서는 우선 금년초에 開設되는 産業研究院의 미국 및 독일 支院을 통하여 歐美諸國의 市場 및 技術情報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東南亞諸國 및 中共의

産業政策 및 技術, 貿易 등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에도 힘을 계획이며 電子産業 關聯統計의 신속한 수집, 배포에도 중점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企業요청 主題調査 및 對企業 情報相談 機能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本 研究院의 금년도 力点事業의 하나인 産業政策의 長期方向 設定 및 産業構造 調整方案과 관련하여 戰略産業으로서의 電子産業이 겪고 있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對政府 建議活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효율적인 産業支援制度의 확립은 電子産業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當室은 企業과 政府의 교량 역할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인 것이다.

韓國經濟에 있어서 電子産業이 갖는 비중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1984년중 電子製品生産 增加率は 약 20%로서 모든 産業中 가장 높았으며 이 결과 電子産業은 國民總生産(GNP)의 10%, 總輸出額의 15%, 전체 雇傭의 20%를 차지하는 核心産業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技術開發 體制의 脆弱이나 部品産業의 未定着, 협소한 國內市場과 國際競爭力의 低位, 선진국 保護貿易主義의 강화, 고급 技術인력 및 技術개발 자금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政府 業界 및 貿易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同意에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打開하는 데 있어서 當室은 企業과 政府를 연결시키는 교량으로 또한 企業의 家庭醫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政府 및 相關기업들과 더욱 빈번한 접촉을 갖고 각계의 高見을 듣고자 한다.